

동부한농화학, 농화학에서 Bio로?

환경친화 농약으로 국내시장 점유율 1위 ... 5년간 1700억원 투자계획

동부한농화학(대표 홍관의)은 농약 시장점유율 1위, 비료 시장점유율 2위의 국내 최대 농업화학기업으로 석유화학사업과 합금철사업 등을 함께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신약, 환경친화형 농약·비료, 식물유전공학제품 등 생명산업 분야와 정보전자재료, 나노재료 등 첨단소재 분야에서 전략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동부한농화학은 육종연구소(식물유전공학), 농업기술연구소(미생물농약), 동부기술원, 신약개발연구소(신약) 등 3개 관련연구소를 중심으로 바이오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신물질 농약 및 신약 개발과 종묘사업 등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씨 없는 과채류, 신물질 제초제 등 농화학 신물질을 개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환경친화적 제초제인 DBH-129, 원예용 살충제 DBI-3204, 미생물 살균제 AC-1, 나방류 방제에 주로 활용되는 <바이오 박> 등 차세대 미래 농약을 최근 상품화했다.

뇌졸중 치료제(벤조피라닐 구아니딘 유도체)가 임상실험에 들어가는 등 생명공학연구개발에서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첨단 소재산업 분야에서는 SMD부품, 순철분말 등 정보통신용 분말과 망간산화물, 반도체용 화학제품 등 반도체 재료의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동부한농화학은 앞으로 5년 동안 기반사업에 410억원, 신약 등 신규 생명산업에 620억원, 정보전자재료 분야에 520억원 등 1700억원을 투자해 기존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면서 생명공학 분야가 총 매출액의 15% 가량을 차지하도록 키울 방침이다.

동부한농화학은 2001년 농약, 석유화학, 비료, 합금철 등의 사업으로 총 792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안정적인 수익기반인 농약과 비료사업을 통해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자본확충과 다각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해 2001년 말 부채비율을 2000년에 비해 6% 줄여 177%로 끌어내렸다.

또 생명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매출액을 1조20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는 판매관리비 절감과 경기회복에 따른 영업 호조로 영업이익률도 1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Chemical Journal 2003/04/15>